

신화 속의 여성주인공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성찰 전략*

권복순**

|| 차례 ||

1. 서론
2. 거울의 경계
3. 의사소통 양상
 - 3.1. 일방적 의사소통
 - 3.2. 쌍방적 의사소통
4. 자기성찰 전략
 - 4.1. 가치 변화
 - 4.2. 가치 내면화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의사소통행위가 다르게 나타난 신화 속 여성주인공들의 소통과 적응 양상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의식을 투영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에 있다.

먼저 외적 자아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면 성찰을 위해 신화 속의 여성주인공을 대상으로 거울 보기를 위한 모델을 추출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 볼 수 있도록 제주도 무속 신화의 여성주인공들 가운데 자아와 세계의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대표 인물들을 추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별 인물은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인물로 제1유형인 ‘원강아미’와 제2유형인 ‘가문장아기’를 들 수 있다. 전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1541)

** 진주교육대학교 강사, grara32@hanmail.net

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차별을 당한 인물이고, 후자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승리함에 따라 역차별을 하는 인물이다. 이와 달리 쌍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은 제3유형인 ‘오늘이’이다. 이 유형에서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과정을 찾아볼 수 없고, 상호 보완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상태를 살펴보면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은 각각 부적응상태의 ‘종속형’과 ‘분리형’에 해당하고, 쌍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제3유형은 적응상태의 ‘통합형’에 해당한다.

자기 성찰 전략은 외적 자아가 내적 자아를 대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 보고 가치변화의 과정을 거쳐 가치 내면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뜻한다. 즉 외적 자아는 내적 자아를 거울보기의 모델로 삼아 유형별 비교분석을 통해 가치 우위를 조직화하고, 바람직한 적응유형을 모델링하여 가치 내면화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제1유형과 제2유형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자기반성과 자기이해의 기회로 삼고 제3유형이 보여준 긍정적인 요소를 본받아 가치의 내면화를 이룰 때,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외적 자아, 내적 자아, 일방적 의사소통, 쌍방적 의사소통, 자기성찰, 가치 변화, 가치 내면화

1. 서론

이 글은 의사소통행위가 다르게 나타난 신화 속 여성주인공들의 소통과 적응 양상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면의식을 투영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거울보기의 모델’을 통한 자아 성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 쓰고자 하는 ‘자기성찰’이라는 용어는 설화가 서사문학의 한 갈래로서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에 의한 작품 내적 자아와 작품 내적 세계의 대결이라는 특성을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쓴 것이다. 외적 자아는 내적 자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바라볼 수 있으므로 성찰의 주체가 되고, 이때 내적 자아는 성찰의 주체를 위한 모델로 존재한다. 전략은 곧 외적 자아가 내적 자아를 통해 내면의식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인지적 조작 활동으로 이를

통해 내면화에 도달하는 교육적 방법을 뜻한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그들을 소수자이며 타자로서 차별을 당하는 주체로 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1478건으로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이뤄진 부부의 이혼상담은 955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상담소 측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이 더 많았지만 2013년부터 역전됐다고 하였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는 이제는 차별과 역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로 확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소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별 성찰의 모델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봄으로써 어느 것이 우월한 가치인가를 인식하는 바람직한 성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21세기 접어들어 결혼이주여성들의 급증으로 이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서 설화의 가치는 재조명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화를 대상으로 다문화와 연계하여 부분별 또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사적 상황은 다문화가정 2세들을 위한 교육학¹⁾분야와 유학생들을 위한 어학²⁾분야와 결혼이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³⁾나 문학치료⁴⁾ 분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부각되어 보인다. 이제는 좀 더

-
- 1) 조용태, 『Dewey의 자유주의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2012.
도니 골닉·필립 천 지음, 연철현 옮김, 『다문화교육』, 한울, 2012.
장인실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2.
권오현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2) 임동진·조근호, 『여성결혼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 3) 권복순·임보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발달권 증진을 위한 담론」, 『인문과학연구』 16집,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성향숙,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11, No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 4) 변학수, 「문학치료와 텍스트의 드라마화」,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V11, No,

세분화하여 통합적으로 정치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작품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크게 문헌신화와 구전신화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문헌신화인 건국신화를 다문화관점에서 결혼이민가족의 2세와 관련하여 논의한 것⁵⁾과 범위를 넓혀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한, 중, 일 창세 건국신화 비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⁶⁾가 있다. 설화의 내재적 가치와 더불어 교육용 자료로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학습자를 위해 실질적인 교수 모형을 제시하여 이론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일조했다. 또한 문화콘텐츠 소재로 건국신화의 원형을 재현하고자 '생태소'라는 개념을 도입한 논의⁷⁾가 있었지만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단군신화와 바리공주의 신화적 상징성을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⁸⁾ 범위를 넓혀 설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사회 교육, 초국가적 다원주의 사회교육에 유의미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물음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논의와⁹⁾ <골계전>을 대상으로 유형화한 업적¹⁰⁾이 이어졌다. 한편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요소들을 1)개체의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 2)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다문화감수성 3)비차별의 추구 4)구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 5)자율적 문화거버넌스로 정리하여 제주신화

1.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008.

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4호, (통권 9호) 중앙대 문화콘텐츠 기술 연구원, 2010.

5) 박진태, 「한민족과 세계, 그리고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6)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1(4), 2008.

7) 석창훈, 「동아시아 신화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육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10집, 2011.

8) 이명현, 「다문화시대 신화의 가치와 의미」, 『동아시아古代學』 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9)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 -구전신화에 내재된 초국가적 원리를 중심으로」, 『어문학』 106, 2009.

10) 임재해, 「설화 속의 다문화현상 읽기」,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08년 2월, 관동대학교.

의 다문화가치를 집중 조명한 논의¹¹⁾가 눈에 띈다. 포괄적 연구 대상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설화의 다문화적 성격과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민담인 〈선녀와 나무꾼〉과 〈우렁각시〉를 대상으로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설화의 교육적 방법론¹²⁾과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를 대상으로 며느리가 주체가 되어 시집을 개선시키는 방안¹³⁾과 전설인 〈아기장수이야기〉를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위한 논의¹⁴⁾가 잇달았다. 아기장수를 기존질서에 반하는 배타적 존재로 봄으로써 다문화현실과 연계한 점은 돋보이나 기존사회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관원을 농침으로써 섬세한 면들이 누락될 여지를 남겼다.

〈단군신화〉 〈나무꾼과 선녀〉 〈여우아내〉 등 이물교혼담을 대상으로 〈단군신화〉에서는 남녀의 위계적 질서가 작동하는 동화주의적 태도로 보고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남성의 욕망이 아니마에 투사되어 상대방을 독점하려는 태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과정을 맞이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여우아내〉에서는 부부간의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희생의 태도¹⁵⁾라고 규정하였다.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과 다문화여성간의 상관성에 관해 깊이있게 고찰한 점은 돋보이나 그러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가부장질서의 이념에 편중된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편 제주도 무속신화의 여성주인공인 〈가문장야기〉와 〈자청비〉를 대상으로 다문화의 충돌과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논의가 눈에 띈다.¹⁶⁾ 다문화 관점에서 볼 때

11) 김정숙,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 『교육과학연구』 18(1),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6.

12) 오정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13) 오정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적응」, 『한국언어문화회』 제9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6.

14) 오정미, 「설화 〈아기장수〉의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6집, 다문화콘텐츠연구회, 2014.

15) 이명현,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 『우리문학연구』 33, 2011.

16) 권복순, 「〈가문장야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

전자는 문화적 평등을 추구하고 후자는 문화적 차별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상 자료의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호성을 남겼다.

최은숙¹⁷⁾은 <삼국유사> 설화를 대상으로 ‘다층적 공감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를 논하였다.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이주자와 정주자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공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 동향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방안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차별뿐만이 아니라 역차별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상대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건전한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거울의 경계

신화전설민담은 어느 것이나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양상을 보인다. 내적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화는 상호 보완적이며, 전설은 세계의 자아화이며 민담은 자아의 세계화 특성을 보인다¹⁸⁾고 하였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러한 갈래론이 모두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공본풀이」에서 이공은 부자관계인 ‘원강도령’과 ‘할락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둘러싼 세계는 옥황상제를 비롯한 자연장자이다. 신화적인 측면에서 할락궁이의 고난은 신직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서사적 측면에서 할락궁이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자아와

말』 51집, 배달말학회, 2012.12.

17) 최은숙,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2015.6.

18)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35면.

세계의 대결에서 패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했으며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우주)로 상징되는 옥황상제나 꽃감관인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논리는 어머니인 원강아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을 위해 작품에 나타난 신화 속 여성 인물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다. 작품을 경계로 외적 자아는 거울 밖에 있는 존재이며 내적 자아는 거울 안에 있는 존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이주자로서 길을 떠난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주체인 자아가 세계와 일련의 관계를 맺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작품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자료의 선정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무속신화를 대상으로 내적 자아와 내적 세계의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 인물을 추출하여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하는 연구 성과에 이르기 위해 소통양상이 다른 유형을 대표 인물로 선정한 것이고 실제 적용시에는 인물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유형: 내적 자아 < 내적 세계: 원강아미,
- 제2유형: 내적 자아 > 내적 세계: 가문장아기
- 제3유형: 내적 자아 → 내적 세계: 오늘이

제1유형은 내적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내적 자아가 패배하여 차별을 당한 인물이다. 제2유형은 내적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내적 자아가 승리하여 역차별을 하는 인물이다. 제3유형은 내적 자아와 세계의 대결 과정을 찾아볼

19)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신화적 인물 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국 고대사의 라이벌인 김수로와 석탈해의 대결은 옛 사서(史書)의 기록에도 전한다. 석탈해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김수로에게 나아간다. 결투를 신청했으나 패하고 만다. 석탈해가 목숨을 구걸하자, 김수로는 관용을 베풀면서 석탈해에게 ‘부하를 이끌고 물러나라’고 명한다. 그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아진포(영일)로 달아난다. (송희복, 「외국 소설 속에 그려진 김해의 여인:허황옥과 백과선」, 『國際言語文學』, 제38권, 국제언어문학회, 2017.12, 41면)

수 없고 내적 자아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 인물이다. 제주도 무속신화의 여성 주인공들은 대부분 제1유형과 제2유형에 속하며 제3유형은 드문 편이다.

3. 의사소통 양상

유형별 의사소통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서 기본 텍스트가 필요하다. 문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 뼈대는 유사하므로 이 글에서는 비교적 화소가 풍부한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20)와 더불어 『제주도 무속신화』 21)와 제3유형이 수록되어 있는 『조선무속의 연구』 22)를 대상으로 한다. 논의의 편의상 자아와 세계의 관계 양상에 따라 나는 세 유형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사소통과 쌍방적 의사소통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일방적 의사소통

〈제1유형: 원강아미〉

① 김진국과 임진국은 동관음사에 원불수륙재를 올려 각각 아들과 딸을 낳아 사돈을 맺기로 하다.

② 김진국 아들은 ‘원강도령’으로 임진국 따님은 ‘원강아미’라 이름 짓고 혼인을 하니 아기를 가지다.

③ ‘원강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임명되어 길을 떠나자 원강아미도 따라 나서다.

④ 원강도령이 배가 부른 원강아미를 자현장자에게 종으로 팔고 아들을 낳으면 신산만산할락궁이라 이름을 지으라 하다.

⑤ 자현장자가 원강아미를 취하려 하자 원강아미가 아기 나이 15세가 되면

20)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21)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22) 심우성 옮김, 赤松智城·秋葉隆 共編,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몸 허락을 하다.

⑥ 아들인 할락궁이가 15세가 되니 어머니에게 아버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협박하다.

⑦ 할락궁이가 길을 떠나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있는 아버지를 만나다.

⑧ 아버지가 할락궁이에게 약심꽃과 환생꽃을 주며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라 하다.

⑨ 할락궁이가 자현장자에게로 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행하여 원수를 갚고 어머니를 살피내다.²³⁾

위의 내용을 단락화하면 딸(①②), 아내(③④) 어머니(⑤⑥⑦⑧⑨)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 딸(①②)로서 존재할 때 원강아미를 둘러싼 세계는 아버지인 ‘임진국’이다. 임진국은 원강아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김진국에게 사돈을 맺기로 한다. 원강아미는 부모와 의사소통의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체성도 없고 세계에 종속된 삶을 살아간다.

아내(③④)로서 존재할 때 세계는 더욱 가혹하다. 남편인 ‘원강도령’이 떠나버린 데다가 자현장자로 대변되는 악인의 횡포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 때 자아와 세계의 관계 양상은 일방적으로 세계의 우위 속에서 자아가 패배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머니(⑤⑥⑦⑧⑨)로서의 삶도 만만치 않다. 아들인 ‘할락궁이’이는 어머니가 자현장자의 꺾박 아래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채를 건디지 못한다. 이에 어머니를 협박하여 아버지의 존재를 알아내고 길을 떠난다. 이 세 단락을 요약하면 ‘원강아미는 어느 세계에서나 내적 자아의 열세 속에서 세계의 횡포에 짓밟혀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물의 전형에 해당한다. 원강아미를 환생시킨 과정도 마찬가지다. 부자(父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원강아미의 서사는 판소리 〈변강쇠가〉의 용녀와 닮아 있다. 용녀는 버림을 당했다기보다는 쫓겨난 존재다. 용녀가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찍힌 것은 청상살이란 굴레로 차별의 상징을 얻게 된 때부터이다. 여성이 정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

23)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83-93면.

더러운 존재'일지 모른다. 여성이 더러운 존재가 아닐 때에는 가부장제가 만들어놓은 폭력적 구조하에서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²⁴⁾ 옹녀가 더러운 존재로 낙인찍힌 것과 달리 원강아미는 가부장제도에 짓밟혀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정주할 곳이 없다는 점에서 이주자이고 난민이다.

〈제2유형: 가문장아기〉

- ① 가난한 강이영성과 흥운소촌은 우연히 연분이 닮아 부부 연을 맺게 되다.
- ② 세 딸인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문장아기가 태어나니 차츰 천하거부가 되다.
- ③ 부부가 세 딸에게 누구 덕으로 사느냐고 질문을 하니 위의 두 딸은 부모의 덕으로 산다고 하나 가문장아기만이 '배꼽 밑의 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다.
- ④ 부모가 섭섭하게 여겨 가문장아기를 집에서 내쫓다.
- ⑤ 가문장아기가 집을 떠나올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언니를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만들어버리다
- ⑥ 세 딸이 사라지자 부모는 장님이 되고 거지가 되어 길을 나서다.
- ⑦ 가문장아기는 산중에 허름한 초막을 발견하고 노부부에게 채워줄 것을 청하자 아들 삼형제가 있다고 거절하다.
- ⑧ 큰 마통이 둘째 마통이가 와서 가문장아기를 발견하고 옥을 하나 작은 마통이는 반갑게 맞이하다.
- ⑨ 큰 마통이와 둘째 마통이는 부모께 마 모가지와 꼬리를 드리고 막내는 잔등을 드리다.
- ⑩ 가문장아기가 참쌀밥을 해 마통이 부모, 첫째 둘째에게 갖다 드리니 모두 화를 내나 막내 마통이는 서로 통성명을 하고 맛있게 먹다.
- ⑪ 가문장아기가 막내 마통이와 백년동거 약속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자다
- ⑫ 다음 날 마통이들이 마 꿇던 데를 가 보니 큰마통이와 작은 마통이가 꿇던 데는 똥과 해충들이 가득하고 막내 마통이가 꿇던 곳은 금과 은덩이가 나오니 금세 부자가 되다.

24) 서유석, 「공포와 혐오, 그리고 환대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으로 읽어보는 유랑민 서사」 -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제18차 우리문화회 전국학술대회』, 우리문화회, 2018, 8-9면.

⑬ 부모를 찾기 위해 거지 잔치를 벌여 마침내 부모를 찾다.²⁵⁾

제2유형인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는 원강아미와 달리 세계와의 대결에서 당당히 맞선다. ‘가문장아기’의 삶은 딸(①②③④⑤⑥⑬)과 아내(⑦⑧⑨⑩⑪⑫⑬)로서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 딸로서 존재할 때 내적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가문장아기 대 부모, 언니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세계로 대변되는 가족들의 세력이 우세한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가문장아기의 승리로 끝이 난다. 대결의 결과 부모는 장님이 되고 언니는 청지네, 용달버섯으로 변한다.

다음으로 가문장아기 대 마통이 삼형제와의 대결이다. 가문장아기가 집을 나와 만난 사람은 마통이 삼형제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주도적 위치 아래 정주자인 마통이 삼형제를 시험한다. 가문장아기는 시험을 통과한 막내 마통이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는다.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내적 자아인 주인공과 이를 둘러싼 세계 즉 정주자와의 관계 양상은 내적 자아의 우세 속에서 일방적 의사소통의 양상을 보인다.

2.2. 쌍방적 의사소통

〈제3유형: 오늘이〉

① 옥같은 계집애가 적막한 들에서 나타나니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자 강남들에서 솟아났다고 하다.

② 성과 이름을 묻자 모른다고 하다.

③ 지금까지 어찌 살았냐고 묻자 학이 나타나 보호해 주고 야광주를 물려주어서 무사히 지냈다고 하다.

④ 나이를 물으니 모른다고 하자 사람들이 오늘을 낳은 날로 하고 오늘이라 이름을 지어준다.

⑤ 백씨부인이 오늘이에게 부모국을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하니 부모국이 원천강이라 알려주며 별충당에 가서 글 읽는 청의동자를 찾아가라 하다

⑥ 오늘이가 별충당을 찾아가 원천강 가는 길을 물으니 연화꽃의 연꽃나무에

25)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95-107면.

게가 물으라 하고 원천강에 가거든 왜 이곳에서 글만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 달라 하다.

⑦ 오늘이가 연꽃나무를 찾아가 길을 물으니 천하대사(天下大蛇)에게 물으라 하고, 원천강에 가거든 왜 상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 피지 않는지 이유를 알아 달라 하다.

⑧ 오늘이가 천하대사(天下大蛇)를 찾아가 길을 물으니 오늘이를 등에 태워 물을 건넌 후에 매일이에게 물으라 하고 자신이 야광주를 셋이나 물고 있어도 승천을 못하는 이유를 알아 달라 하다.

⑨ 오늘이가 매일이를 찾아가 길 인도를 청하니 가다보면 시녀궁녀에게 물으라 하고 원천강에 가거든 자신이 왜 글만 읽고 살아야 하는지 물어 달라 하다.

⑩ 오늘이가 옥황의 시녀궁녀를 찾아가니 길을 물으니 바가지에 구멍이 뚫려 물을 퍼낼 수 없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구멍을 막아주니 시녀궁녀가 오늘이와 동행하여 별당으로 안내하다.

⑪ 오늘이가 원천강에 도달하여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무의적으로 박정하다고 한탄을 하자 문지기가 동정하여 부모에게 고하니 마침내 오늘이가 원천강에 들어가다.

⑫ 부모가 오늘이를 자식으로 인정하여 원천강을 구경시키니 그 곳은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⑬ 오늘이가 부모에게 원천강으로 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일을 아뢰니 그 해답을 알려준다.

⑭ 매일이와 장상이는 부부가 되고 연꽃은 옷가지의 꽃을 꺾으니 꽃이 피고 대사는 야광주 하나만 물어 승천하다.

⑮ 오늘이는 야광주와 연꽃을 받아서 옥황의 신녀로 화하여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다.²⁶⁾

제3유형의 대표 인물은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이다. 오늘이 서사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내적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신화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주인공인 오늘이가 원천강이라는 이상향에 이르기까지 맺은 세계는 인간을 비롯하여 식물, 동물 그리고 하늘나라의 선녀들까지 다양하

26) 심우성 옮김, 赤松智城・秋葉隆 共編,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292-299면.

다. 오늘이 서사는 신화적인 측면에서는 사계절 우주 질서를 바로잡은 것의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의사소통 측면에서 볼 때는 자아와 세계와의 상호소통하는 바람직한 관계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서로 간의 공감과 배려 속에서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기 성찰 전략

신화 속의 여성 주인공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기 성찰을 하고자 할 때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략이란 외적 자아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내적 자아를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투영해 보고, 자기 내면화²⁷⁾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나 책략을 뜻한다.

현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은 정부의 지원 아래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 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군·구 단위 센터별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대부분 언어에 치우쳐 있고 다른 교육은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주자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앞에 접두사 (multi)가 붙은 다문화의 개념은 미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인 여러 민족이 혼합된 인구구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한 국가 내부에 다수의 종족·민족·인종의

27) 융이 제창한 분석 심리학에서 쓰인 용어로 자기원형(自己原型, Archetypus des Selbst)을 뜻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통일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하는 무의식의 원초적 조건으로서 전일(全一)의 상징, 대극합일(大極合一)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무의식을 깨우치고 그것을 의식으로 화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잠재된 것들을 모두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의식된 전일(全一)의 존재가 되게끔 하는 원동력이 숨어 있다. 그것이 자기원형의 작용이다. 자아(ego)가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전체정신(自己, Selbst)에 도달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을 自己實現(Selbstverwirklichung)의 과정이라 한다. (이부영, 『韓國國民譚의 深層分析』, 집문당, 1995, 19면)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 이주한 독일 유대인 출신의 호라스 칼렌(Horace Kallen)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다.²⁸⁾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세분되는데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포함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같다. 그러나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는 한 국가 내에서 주류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비주류사회와 그들의 문화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²⁹⁾ 이주자와 정주자간의 바람직한 다문화형성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가치 변화

가치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할 전략은 거울보기다. 거울보기란 거울신경세포가 말 그대로 거울처럼 작용하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흉내 내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고안한 것이다. 거울신경세포는 감정을 전염시킨다. 우리가 목격한 감정을 우리 안에 흐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정과 어우러지게 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좇아가게 만든다. 이 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느낀다’. 마치 다른 상대가 우리 몸을 빌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의 감각, 움직임, 기분 감정 등을 느낀다. Goleman은 사회적 능력이 거울신경세포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³⁰⁾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신화 속의 인물들을 거울보기의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먼저 내적 자아인 유형별 인물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할 것이

28)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강현출판사, 2010, 17면.

29) 최원오,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08년 2월 관동대학교, 1-3면.

30) 황다현, 「공감교육을 통한 초등학교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4.2, 22면.

다. 이런 측면에서 유형별 인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검토과정도 필요하다. 문화적응 유형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압축된다.³¹⁾

문화적응유형					
적응유형			부적응유형		
동화	변혁	통합	종속	분리	주변화
주체성(-)	주체성(+)	주체성(0)	주체성(-)	주체성(+)	주체성(0)
소통(+)	소통(+)	소통(+)	소통(-)	소통(-)	소통(-)

보다시피 문화적응유형은 크게 적응유형과 부적응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인물에 적용해 보면 제1유형인 ‘원강아미’는 부적응유형 중에서도 종속형에 속한다. 일레로 아들과의 대화 장면에서 종속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내적 자아인 원강아미는 아들로 대변되는 세계와의 소통에 있어서 주체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들의 일방적 강압에 의해 진실을 이야기 해 주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모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로가 원하는 지향점이 달라 소통이 단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할락궁이가 열다섯 되는 해에 어머님 보고 말을 하되,
어머님아 어머님아,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갔습니까?”

“자현장자가 너의 아버지이다.”

하루는 가랑비가 살살 내리는 날,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나 한 되 볶아 주십시오.“

<중략>

“아이고 어머님, 콩이 전부 타지 않습니까, 손으로라도 빨리 저으십시오.”

손으로 저으려 하니, 할락궁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누르면서,

31) 오정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적응-설화 <시부모 길들인 며느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160면 재인용.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제도 바른 말 못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간 곳을 알려주십시오.”

“이 손 놓아라. 말해 주마.”

손을 놓으니, 어머님이 말을 하되,

“너희 아버지는 서천꽃밭 꽃감관 꽃성인이다.”³²⁾

제2유형인 ‘가문장아기’는 언뜻 보면 주체성이 강해 보여 적응유형 중에서 변혁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측면에서 볼 때 세계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부적응유형의 분리형에 가깝다. ‘가문장아기’를 둘러싼 세계는 가문장의 가족과 마통이 삼형제로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정주자로 대표되는 세계와 관계에서 일방적인 소통을 감행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파괴한 인물이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언니들을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환생하게 하고 자신을 내쫓은 부모마저 눈을 멀게 하고 거지로 만들어 버린다.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앓았다가 큰딸아기 소식이 없고 둘째딸아기 소식이 없어지니,

“이게 어쩐 일인고.”

하여 문 밖으로 내닫다가 문 위 지방에 눈이 걸려 장님이 된다. 강이영성이 서불 홍운 소천궁에궁은 앓은 채로 먹고 입고 써 가니, 재산이 탕진되어 거지로 나서게 되었다.³³⁾

제3유형인 ‘오늘이’는 적응유형의 통합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통합을 이룬다. 통합형은 주체가 따로 없이 이주자와 정주자가 상호주체성을 가지고 서로간의 문화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³⁴⁾ 상호보완적이고 공감과 배려가 돋보이

32)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87-89면.

33)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99면.

34) 동화 (주체성-, 소통+): 이주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한 채, 정주문화와 소통만을 지향한다.→정주문화중심의 문화적응.

통합(주체성0, 소통+):이주자가 상호주체성을 가지고 정주문화와의 소통을 지향한다.→상호문화중심의 문화적응. (오정미, 위의 글, 161면)

는 대화 장면을 가져와 보기로 한다.

매일이는거번의칭의동자모양으로별층당우에안지,글을넉고있더라인사를맞치고,부모국원턴강의길인도를칭하니,꽤로히승락하고원턴강에가서,자기의항상글만넉고있는팔자를 무리 다달나하고 오날이에게 부탁하다.³⁵⁾

외적 자아가 내면을 투영해 보는 거울보기의 단계는 독서치료 과정상 병치의 단계에 해당한다. 병치는 새로 제시된 개념과 전에 세웠던 의견이나 느낌을 대조해 보게 되는 과정이다.³⁶⁾

외적 자아에 따라 원하는 문화적응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외적 자아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통합형이 바람직한 가치관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부적응유형을 통해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나 자신이 본받아야 할 모델링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적응유형 중에서도 동화형과 변혁형은 소통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주체적 측면에서 정주자가 우위인가 이주자가 우위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대등한 입장에서 고유의 문화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4.2. 가치 내면화

자기 내면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작품의 힘에 달려 있다. 작품은 외적 자아가 자기적용을 하도록 하기보다는 촉매로 작용하는 것이다.³⁷⁾ 결과적으로 자기 인식(self-awareness)은 유형별

35) 심우성 옮김, 赤松智城・秋葉隆 共編,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295면.

36) Hynes와 Hynes-Berry(1994)는 독서치료의 과정을 (1)인식 (2)고찰 (3)병치 (4) 자기적용의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김현희 외, 『독서치료』, 학지사, 2004, 66-75면)

37) 김현희 외, 『독서치료』, 학지사, 2004, 74-75면.

외적 자아가 내적 자아를 대상으로 한 거울보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병치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한 다음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적응유형으로 바꾸어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이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제안으로 그치거나 작품을 활용한 범위가 가족 관계에 한정한다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외적 자아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응유형을 평가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아래 지역별 공적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기 내면화는 가치의 조직화와 성격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직화는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 체계로 개인의 내면에 조직되는 것이고, 성격화는 내면화과정이 정점에 이르면 양삼의 발달, 행동양식, 생활철학이 반영되어 가치가 일반화되는 틀로 규정지어지는 것을 말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유형별 거울보기의 대상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응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일련의 다문화교육을 통해 자기점검을 하게 될 것이다. 최은숙은 〈삼국유사〉 설화를 소재로 공감의 다층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공감은 감정적 전이로서의 공감,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 탈동일시과정으로서의 공감³⁸⁾으로 나누었다. 이 논의에서는 작품에 나온 내적 인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감의 층위를 나누었는데, 이를 외적 자아 대 내적 자아의 관계로 확대하면 거울보기의 주체와 객체, 즉 외적 자아 대 내적 자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거울보기의 주체는 거울보기 대상이 되는 적응유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상에 대한 감정적인 전이와 인지적인 공감을 거쳐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을 투영함에 따라 공감을 불러올 수 있다.

공감은 소통을 수반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유형별 인물들에 대한 공감은 외적 자아인 자신의 처지와 유사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주자가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주자들에게 차별을 당하는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주자가 정주자를 역차별을 당하는

38) 최은숙,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2015.6, 195-203면.

2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측면에서 외적 자아는 유형별 거울보기의 모델을 통해 자신을 타자화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거울보기의 대상 중에서 자신과 유사한 모델에 대해 감정 전이와 인식 정도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형별 적응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나아가 유형별 적응유형에 대한 가치의 우위를 판단하여 내면에 조직화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다음 다른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를 내면에 조직하는데 내면화과정이 정점에 이르면 양심의 발달, 행동양식, 생활철학이 반영되어 가치가 일반화되는 틀로 자리 잡을 수 있다.³⁹⁾

자기성찰은 유형별 거울보기를 통해 타자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이해와 반성을 위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상호 존중이 수반될 때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의 모델이 보여준 부적응유형의 모델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등을 통해 자기 점검을 하고 제3유형이 보여준 긍정적인 요소를 우선 가치로 두어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실천할 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의사소통행위가 다르게 나타난 유형별 신화 속의 여성주인공을 거울보기의 모델로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면의식을 투영해 봄으로써 가치 내면화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있다.

먼저 외적 자아의 성찰을 위해 모델이 될 수 있는 신화 속의 여성 인물을 추출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제주도 무속신화의 여성주인공들 중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대표 인물들을 추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39) 류성기, 『초등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2013, 264면.

유형별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 따라 의사소통양상을 살펴보면 제1유형인 ‘원강아미’와 제2유형인 ‘가문장아기’는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으로 전자는 자아의 패배로 차별을 당하고, 후자는 자아의 승리로 역차별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달리 제3유형인 ‘오늘이’는 쌍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으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찾아볼 수 없고 상호 보완하는 특성을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전략은 거울보기와 가치내면화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외적 자아의 거울보기 대상이 되는 유형별 인물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상태를 살펴보면 제1유형과 제2유형은 문화부적응유형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각각 종속과 분리 유형에 해당하고 제3유형은 문화적응유형에 속한 인물로서 통합유형에 속한다. 외적 자아인 결혼이주여성들은 부적응 유형과 적응유형을 거울보기의 대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기반성과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자기성찰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바람직한 문화적응을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외적 자아는 내적 자아를 거울의 대상으로 하여 유형별 문화적응 상태를 살핀 다음 유형별 가치 우위를 판단하여 내면에 조직화를 거쳐 가치 내면화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즉 제1유형과 제2유형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자기반성과 자기이해의 기회로 삼고, 제3유형이 보여준 긍정적인 요소를 본받아 통합적으로 가치의 내면화를 이룰 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elf-reflection Strategy of Married Migrant Women Utilizing
Heroines in Myths

Kwon, Bok Soon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cultivate the attitude toward a desirable life as the married migrant women project their own inner consciousness by utilizing the heroines in myths where communication behavior appeared differently.

First, women characters in myths who can become a model for reflection of outer self have been extracted. To derive significant results for convenience of discussion, representative characters whose self and world's relationship aspects appeared differently were extracted from heroines of Shaman myths of Jeju Island have been extracted to make an attempt for typification.

Considering characters per type based on communication aspects, they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groups. First, as the character engaged in unilateral communication, the first type of 'Wongangami' and the second type of 'Gameunjangagi' may be considered. The former is the character who was discriminated by being defeated in the battle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while the latter is the character who is engaged in reverse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victory in the battle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Unlike these, the type of bilateral communication is the third type of 'Oneulee'. In this type, no battle process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can be found, and the inter-supplementing characteristics are observed.

Considering culture adaptation states with these people as the subject, the characters of unilateral communication correspond to 'dependence type' and 'separation type' in the non-adaptation state, while the heroine of bilateral communication corresponds to 'integration' type in the adaptation state.

The self-reflection strategy means a method where the outer self projects her inner side with the inner self as the subject and undergoes the process of value change, allowing value internalization to be reached. Namely, the outer self should make efforts to organize the value priority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per type for the inner self as the subject, and to model a desirable adaptation type so as to be able to reach the value internalization. In other words, the life as a healthy community member in Korean society can be enjoyed when the negative elements contained in the first type and the second type are found out to be made into an opportunity for self reflection as well as self understanding, and internalization of the values is realized by emulating the positive elements shown by the third type.

Keywords: Outer self, Inner self, Unilateral Communication, Bilateral Communication, Value Internalization



참고문헌

□ 기본자료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赤松智城, 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 단행본

- 권오현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순이, 『제주신화』, 여름언덕, 2016.
김현희 외, 『독서치료』, 학지사, 2004, 66-75면.
임동진·조금호, 『여성결혼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장인실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2.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77, 101-103면, 135면.
조용태, 『Dewey의 자유주의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2012.
최현미 외, 『다문화가족복지론』,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편, 양서원, 2008.
도니 골락·필립 천 지음, 연철현 옮김, 『다문화교육』, 한울, 2012.

□ 논문

- 강정희, 「지역어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방안」,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년 하계 전국학술발표논문집』, 2010년 8월, 경북대학교.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집, 배달말학회, 2012.12.
권복순·임보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발달권 증진을 위한 담론」, 『인문과학연구』 16집, 대구카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나수호, 「외국인이 보는 한국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류성기, 『초등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2013, 264면.
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4호, (통권 9호) 중앙대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2010.
박진태, 「한민족과 세계, 그리고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회,

- 2008.
- 변학수, 「문학치료와 텍스트의 드라마화」,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V11, No, 1,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008.6.
- 성향숙,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11, No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 양민정,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1(4), 2008.
- _____, 「다문화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 연구」, 『외국문학연구』, (57), 2015.
- 오정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_____,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적응」, 『한국언어문학회』 제9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6, 161면.
- _____, 「설화 <아기장수>의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6집, 다문화콘텐츠연구회, 2014.
- 이동희, 「부모화된 아이를 위한 <심청가>의 문학치료적 의의」, 『구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 이명현, 「다문화시대 신화의 가치와 의미」, 『동아시아古代學』 제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 _____,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 『우리문학연구』 33, 2011.
- 이수현, 「한국어 교재 2권에 제시된 어휘 분석」, 『2012 한국어 교육세미나(2차)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경상대 국어문화원, 2013.
- 이홍우, 「<글로벌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의 구술문화적 분석」,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임동진·조금호, 『여성결혼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 임재해, 「설화 속의 다문화현상 읽기」,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08년 2월, 관동대학교.
- 서유석, 「공포와 혐오, 그리고 환대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으로 읽어보는 유랑민 서사-〈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제18차 우리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우리문학회, 2018.7, 8-9면.
- 송희복, 「외국 소설 속에 그려진 김해의 여인:허황옥과 백과선」, 『國際言語文學』, 제38권, 국제언어문학회, 2017.12, 41면.
-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 -구전신화에 내재된 초국가적 원리를 중심으로-

로」, 『어문학』 106, 2009.
최은숙,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2015, 195-203면.

이 논문은 2018년 11월 09일 접수되어 12월 07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

K C I

KCS I